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 가솔린 가격은 인하될까?³⁾

임수진

1938년 석유 국유화 선언

1938년 3월 18일 오후 10시, 멕시코 전역에 라디오를 통해 발표된 카르데나스(Cárdenas)정부의 ‘석유국유화’ 선언은 대다수 멕시코인들에게 통쾌한 한판승이었다. 이미 한 세기 전 독립과 한 세대 전에 혁명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강대국에 종속관계로 얽힌 사슬을 끊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 극명함을 보여주는 한 예가 외국자본에 잠식된 멕시코 석유산업 부문이었다. 1920년대 멕시코 석유생산이 세계 생산량의 14%를 점하며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하던 영광스런 현실 앞에서, 멕시코는 석유로 인한 부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었다. 당시 멕시코 석유생산은 90% 이상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자본에 의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석유생산이 만들어내는 부 또한 이들의 수중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멕시코의 내륙과 해저에서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채굴되었지만, 석유가 멕시코에 주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세상의 배는 불러주면서도 정작 자국 멕시코의 배는 불러주지 못하는 형

3) 201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멕시코 에너지 개혁은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전기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석유부분에 한정하여 에너지개혁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938년 3월 멕시코 석유 국유화 선언을 하는 카르데나스 대통령
(출처: <http://noticias.universia.net.mx/>)

국이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멕시코 내 석유생산을 담당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1929년 대공황 이후 석유 관련 기업에서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독립 이후 한 세기를 넘겼는데도 여전히 강대국으로부터 수탈당하고 있다고 여기던 상황에서 발표된 ‘석유 국유화 선언’ 이야말로 멕시코인들에게 진정한 독립이자 현실적인 혁명으로 받아들여졌다. 1938년의 석유 국유화 선언은 멕시코혁명 직후 개정된 헌법 27조(“멕시코 영토 내 지표와 지하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예외 없이 국가가 소유한다”)에 근거한 것이었고, 시행법에 “석유의 탐사와 시추, 채굴, 운송, 가공 그리고 판매의 모든 과정은 오직 국가 기관이 담당한다”라고 명기하면서 세계 최초의 국영 석유기업인 페멕스(Petróleos Mexicano: PEMEX, 이하 PEMEX)가 탄생했다. 동시에 그간 석유의 탐사부터 시추와 채굴을 담당하던 외국 기업의 권한이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당시 멕시코 석유 생산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이 외교관계의 단절은 물론이고 자국 자본의 회수를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었지만, 멕시코 정부와

시민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⁴⁾

석유국유화 선언과 함께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멕시코의 진정한 독립을 자축했다. 유럽과의 관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가톨릭교회도 지지 대열에 적극 동참하였고, 지극히 보수적 성향의 국내 기업들도 카르데나스 정부의 석유 국유화를 지원하였다. 멕시코시티 헌법 광장에는 연일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당시 멕시코 석유산업을 장악하고 있던 외국 기업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들고 나와 거국적인 차원의 장례를 치루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석유국유화 선언과 관련하여 당시 멕시코 정부가 외국 자본을 10년 내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자, 거리거리마다 부녀자들이 앞을 다투어 집에서 키우던 닭과 계란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국가의 빚을 갚는데 보잘것없는 닭 한 마리라도 기꺼이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국민의 외채 갚기 운동은 아녀자들의 ‘닭 한 마리 보태기 운동’에 이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이어졌으니, 국립 예술전당에 석유국유화에 따른 나라 빚을 갚기 위한 기부 물자 접수처가 설치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아이들의 저금통부터 귀금속과 골동품, 호화스런 악기와 의류까지 접수처 앞에 줄을 지어 늘어섰다.

2013년 에너지 개혁

이처럼 절실하고 이처럼 자랑스러웠던 1938년의 멕시코 석유 국유화 선언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75년 전 강대국들

4) 석유 국유화를 선언했을 때 미국 정부는 멕시코 분리주의자들을 상대로 독립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주 대상지역은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로,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치와와(Chihuahua), 코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소노라(Sonora), 타마우일파스(Tamaulipas), 노르테 데 베라크루스(Norte de Veracruz) 지역이었다. 또한 멕시코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미국계 석유기업이던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과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은 멕시코가 100%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정유 가공물질들에 대한 멕시코 수출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2013년 에너지 개혁안을 발표하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
(출처: <http://www.oilandgasmexico.com/>)

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감행한 국유화 정책이 다시 그 이전의 민영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당시 헌법에 “멕시코 영토 내 지표와 지하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멕시코 국가가 소유하며, 이에 대한 탐사와 개발은 오직 (석유의 경우) PEMEX가 담당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수정되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 시행법이 제정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세부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개혁의 근간은 멕시코 해저에 매장된 석유 탐사와 개발 전 과정에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그간에 석유와 관련하여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독주하던 PEMEX도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석유개발의 최소 20%는 PEMEX의 몫으로 남긴다. 하지만, 유전 개발에서 PEMEX가 5년 안에 성공적인 채굴을 하지 못하면 민간기업으로 넘기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75년 전인 1938년 카르데나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석유 국유화 정책과 상극을 이루는

조치이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정부가 지난 75년간의 상황을 뒤엎고 다시 개혁하자는 데는 그들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멕시코 정부의 재정 수입 1위는 단연 석유다. 전체 국가 예산의 14%를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멕시코 원유 생산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일일 300만 배럴 이상이던 원유 생산량이 2013년 현재 200만 배럴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와 관련하여 정부의 설명은, 비교적 채굴이 쉬운 해저 500미터 이내의 원유는 매장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마저 지금의 PEMEX가 가지고 있는 설비로는 효과적인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수심 1,500미터 이상의 심해저에는 미래의 새로운 연료로 부상하고 있는 셰일 가스뿐만 아니라 다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지금의 PEMEX 기술과 설비로는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불가피하고, 어떤 형태로든 심해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나라 살림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요, 석유산업 활성화의 전·후방 효과 발생하리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고용인데, 2018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가, 그리고 2025년까지는 자그마치 2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약속한다. 그 뿐이랴. 당장 2년 후인 2015년부터 멕시코 국민은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솔린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석유 생산에 따른 잉여의 분배가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하게 멕시코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 또한 빼놓지 않는다.

무관심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75년 전 석유 국유화 선언 때는 국가가 진 빚을 갚고자 개인 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 환호하던 국민이었는데, 그와

정반대의 조치 앞에서는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한 2012년 12월 1일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각종 언론이 거의 매일 앞을 다투어 석유와 전기 부문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개혁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도 사실 시민사회의 반응은 완전한 무관심이다. 석유생산량 증가를 통해 국가의 부가 쌓일 것이라는, 혹은 현재 대통령 임기 안에 에너지 개혁으로 인해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에도 멕시코 국민의 반응은 그저 무관심이다. 지난 12월 이미 에너지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PRD)이 연일 석유산업의 민영화는 곧 나라를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것과 다를없다며 격렬한 비판을 하는데도 전혀 무반응이다.⁵⁾

75년 전 집에서 키우던 닭과 어린 아이들의 통장까지 들고 나와 석유 국유화를 환영하던 이들의 애국과 열정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난 75년간 오직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던 PEMEX에 투영되던 국가적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외국자본의 수중에 있던 자국의 석유를 되찾는 것이 곧 진정한 독립이라 여기던 흥분과 PEMEX를 통해 산유국으로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란 기대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제 다시 지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멕시코 석유 탐사와 개발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국가의 결정 앞에 멕시코 국민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지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실망과 불만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 국민은 석유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석유가 100% 국가 재산이라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5) 2013년 12월 13일 에너지개혁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자 이 법에 반대하는 민주혁명당(PRD) 소속 국회의원 안토니오 가르시아 코네호(Antonio García Conejo)는 “멕시코의 석유를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해 멕시코가 발가벗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알몸시위를 하기도 했다.



가솔린사태 (Gasolinazo) 를 풍자하는 그림 (출처: <http://redesquintopoder.com/>)

멕시코 정부 발표대로라면, 1배럴의 원유를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은 7달러 미만이고, 같은 양의 원유 수출액은 100달러 이상이다. 하루에 25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 석유는 분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⁶⁾ 그러나 이러한 황금알의 혜택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삶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가장 흔한 예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료 값 급등을 뜻하는 가솔린사태(Gasolinazo)라는 단어는 일상용어가 되어버렸다. 2011년 이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을 기점으로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014현재 국영 PEMEX 주유소에서 가솔린 1리터 당 가격이 1달러를 넘어서고 있다.⁷⁾ 소득수준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웃

6) PEMEX가 매일 정부에 주는 돈이 6억3천만 페소다. 일주일이면 44억7천3백만 페소가 정부로 들어간다(“Pemex, irreparable”, El Economista, 2013 08 14,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3/08/14/pemex-irreparable-the-economist>)

나라 미국보다도 비싼 가격이라는 조롱이 나올 만하다. 가솔린사태는 2015년 12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한 바 있으니, 그 이유는 석유산업 부문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간의 화려한 시절은 국가와 PEMEX만의 몫이었는데, 이제 와서 온갖 부정과 부실 경영에 따른 손실을 같이 메꾸자하니, 팍팍한 살림에 가솔린사태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일이다. 아무리 멕시코가 원유 수출에 비해 정유 수입의존도가 높다 해도 PEMEX라는 유일 국영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석유산업이 상습적인 적자에 허덕인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멕시코시티 한 복판에 우뚝 솟은 PEMEX 건물이 주는 위용과 라틴아메리카 내 최고 석유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PEMEX라는 단어가 멕시코 내에서 부정부패와 동의어로 이해되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쉬워진다.

멕시코 내 대부분의 거대 국가기관이 그러하듯이, PEMEX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에너지개혁 시행법이 국회통과를 바로 앞둔 시점이었던 2014년 상반기 멕시코 모든 언론의 최대 톱뉴스는 단연 오세아노그라피아(Oceanografía)⁸⁾ 사건이었다. PEMEX에 석유 탐사와 채굴, 가공, 운송에 관련된 제반 해상 용역을 제공하던 회사 오세아노그라피아가 PEMEX가 관련된 허위 지불보증서를 담보로 시티은행의 멕시코 계열사인 바나멕스(BANAMEX)에서 5억8천6백 달러를 차용하여 유용하였다. 바나멕스뿐 아니라 시티은행의 해당분기 재무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 규모가 큰 사기 사건이었다.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데,

7) 2011년 1월 리터 당 8.8페소이던 가솔린 가격은 2014년 현재 13페소까지 상승하였다.

8) 석유 산업과 관련하여 잡수, 설비, 검사, 정비, 운송 등 해상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수입의 97%를 PEMEX와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이 회사의 실체는 비센테 폭스 전 대통령의 두 의붓아들(당시 영부인 마르타 사아군의 아들) 마누엘 브리비에스카 사아군과 호르헤 브리비에스카 사아군과 영부인의 동생 기예르모 사아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센테 폭스를 비롯하여 국민행동당(PAN)이 집권하던 2000년 이후 12년 간 이 회사와 PEMEX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이를 기반으로 급성장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멕시코 검찰은 HP와의 부정스캔들, 그리고 에브야 (Evyá)와의 부정스캔들까지 시의 적절하게 밝혀내면서 에너지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멕시코 석유산업의 부정부패 이미지 혹은 무능 이미지를 재확인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5년간 멕시코 석유가 PEMEX를 통해 자국에게 가져다 줬다는 부의 혜택은 고사하고,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가솔린사태로 떠안아야 하는 국민에게서 75년 전과 같은 자국의 석유를 지켜야 한다는 열정과 자존심을 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지난 날 멕시코 석유가 낳은 풍요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하기보다는, 외국자본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만사가 해결될 같은 장밋빛 전망에 오히려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에너지 개혁이 이루어지면 가솔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무언의 혹은 무관심의 환영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민, 쿠아론(Cuarón)이 묻다

불과 83시간, 에너지개혁법의 상원과 하원 국회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멕시코 역사상 유례가 없다 할 만큼 빠른 속도다. 75년간 이어진 역사의 흐름이 한 순간 방향을 바꾼 것이다. 국회 내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가 아니었고, 시의 적절하게 부각된 PEMEX 관련 각종 부정 비리 사건이 에너지 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하루에도 수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혁명당(PRD) 페냐 니에토 정부가 의회 내에서 에너지개혁법 통과에 대한 국민행동당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오세아노그래피아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행하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PRI teme perder apoyo del PAN en tema energético si indaga Oceanografía: PRD”, La Jornada, 2014 03 11, <http://www.jornada.unam.mx/ultimas/2014/03/11/pri-teme-que-investigar-oceanografia-retire-apoyo-del-pan-en-materia-energetica-barbosa-8730.html>)

십 만 명의 교사가 멕시코시티의 헌법광장을 메우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2013년 교육개혁에 비한다면, 참으로 조용한 개혁이다.

이만하면 순풍에 돛을 단 듯 하다고 하겠으나 에너지 개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지난 4월 말, 한 시민이 대통령에게 물었다. 201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중력」(Gravity)이라는 영화로 감독상과 편집상을 받은 멕시코 영화감독 알폰소 쿠아론(Alfonso Cuarón)이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의 형식을 택한 쿠아론은 먼저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철저한 시민의 입장임을 밝히고, 에너지 개혁에 대해 10가지 질문을 하였다. 물론 이 서한에서는 사회적 의견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 채 진행되는 에너지 개혁의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노라 편지의 서두에서 밝힌 대로 10개의 질문은 간결했다.¹⁰⁾ 그렇지만 정작 멕시코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으나 일개 시민으로서 쉽게 질문의 기회를 찾을 수 없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열 개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가 ‘가솔린 가격은 언제 내릴 것인가?’였고, 이어서 민간자본과 PEMEX 사이의 부정결탁, PEMEX 노조의 개선의지, 거대 외국자본에 의한 수탈 염려, 민주주의에 우선하는 자본의 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거의 마무리되어가던 에너지 개혁을 다소 지루하게 보도하던 멕시코의 언론은 톱뉴스로 쿠아론 감독의 열 가지 질문을 기사화했고, 이를 후 대통령 또한 공개서한 형식으로 쿠아론

10) Alfonso Cuarón의 10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가솔린 가격은 언제부터 내려갈 것인가?, 2. 에너지개혁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멕시코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탐색하고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4. 대규모 거대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그들과 국가사이의 부정결탁을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가?, 5. 이미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거대자본에 멕시코의 민주주의가 잠식될 우려는 없는가?, 6. 거대자본에 의한 지하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7. 부패할 대로 부패한 PEMEX의 노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8. 그간 PEMEX가 담당해온 국가예산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 누가 감당할 것인가?, 9. 외국자본에 의한 석유 채굴시 그 이익이 멕시코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10. 그간 멕시코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민영화는 오직 기업의 배를 불려줬을 뿐 소비자의 배를 채워주지는 못했는데, 에너지개혁에서는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영화 Gravity의 감독 Alfonso Cuarón
(출처: <http://images.entertainment.ie/>)

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이후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쿠아론이 던진 10가지 질문에 자기 나름의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명 시민의 역할로 단 한 번의 사회적 논의 없이 마무리되던 에너지 개혁이 겨우 막차를 잡아타는 격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답변에 역시나 공개서한 형식으로 고마움을 표하던 쿠아론은 서한 말미에 다시 한 가지를 더 제안했다. 에너지 개혁을 공개토론에 부치는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에너지 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공중파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하자는 제안이다. 아직 이 제안에 대해 대통령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시민 한 명의 질문으로, 이제 겨우 에너지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민 쿠아론이 나올지 모르겠다. 페냐 니에토 정부는 계속해서 PEMEX는 절대 팔거나 민영화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 기업이 PEMEX와 계약을 맺고 석유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듯 반복해 말하고 있다.¹¹⁾ 애석하게

도, 아직까지도 멕시코 정부는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석유의 국유화건 민영화건, PEMEX의 소멸이건 존속이건, 국민에게 그리 중요치 않은 문제다. 진정한 에너지 개혁이라면 쿠아론의 첫 번째 질문, ‘가솔린 가격은 언제 내릴 것인가?’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임수진 - 멕시코 콜리마대학교 정치사회과학대학 교수

11)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개혁 관련 홈페이지 (<http://presidencia.gob.mx/reformaenergetica/#!landing>) 첫 화면에 나오는 글귀는 ‘민영화는 반대. 에너지 개혁은 찬성’ (No a la privatización, Si a la Reforma Energética)이다.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페냐 니에토 정부가 강조해 온 것은 PEMEX와 전력공사(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는 절대 민영화하거나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Excelsior 2013 08 12, “Pemex y CFE no se venden ni se privatizan, subraya Peña Nieto”, <http://www.excelsior.com.mx/nacional/2013/08/12/913277>).